

青少年의 潛在的 非行豫測을 위한 尺度開發에 관한 研究

梁 点 道(大邱大學校 社會福祉學科 講師)

I. 緒論

1. 問題의 提起

청소년들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서 신체적 인지적 발달과 더불어 부모의 기대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정신적 불균형이나 부적응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¹⁾ 사소한 욕구좌절에도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기²⁾라고 할 수 있다. Offer³⁾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혼돈상태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아동기적 문제가 잔존해 있거나 혹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혼돈상태가 지속된다고 했다. Negra⁴⁾는 청소년 시기에 유해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자아방어 기제가 약화되어 위기상태에 처하게 되며 부적응 양상을 보여 주게되고 그 결과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은 의존성과 독립성의 내적 갈등속에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행동⁵⁾을 야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몇몇 종류의 비행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청소년 중 대다수가 사소한 비행일지라도 적어도 한번쯤은 직접 비행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들 청소년의 비행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전체 범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님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⁶⁾

- 1) R.E.Grinder, Adolescence, 2nd(ed.)(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8), p.195.
- 2) E.H.Erikson, "The Problem of Ego Identity,"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956), pp.56~121.
- 3) D.Offer, The Psychological World of the Teen-Ager(New York : Basic Books, 1969), p.211.
- 4) A.Negra, Adolescence, Some Diagnostic, Pronostican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S.C.Fein Stein and P.S. Giovachin(eds.), In Adolescent Psychiatry, Vol.2(New York : Basic Books, 1973), p.414.
- 5) F.Dunbar, "Homeostasis during Pover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14(1968), pp. 673~682.
D.R.Peterson, "Behavior Problems of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onsultant Psychology, 25 (1961), pp.194~204.
- 6) 이윤호, 한국청소년비행론(서울 : 법문사, 1991), p.11.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전통적,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개방적, 민주적 정치구조에로의 급변,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물질주의, 편법주의, 배금사상의 만연,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과 사회의 청소년 지도 기능의 약화, 전통문화와 근대문화의 공존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등이 청소년들의 비행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제요인으로 인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매년 증가 현상⁸⁾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조폭화, 집단화, 흥폭화 및 연소화⁹⁾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그 사회의 시대적 병리현상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며 또 장래의 국가 발전은 물론이고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육성해서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¹⁰⁾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 가운데 비행 청소년의 대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비행청소년 대책은 예방적 접근과 통제적, 교정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비행의 예방적 접근의 모색은 19세기 초 Lombroso의 체질 유전학적 연구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비행의 원인 연구를 통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시도하여 왔다.¹¹⁾

그러나 비행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그 시대, 사회 및 학자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여 지난 20~30년간 사회과학 연구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¹²⁾가 되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학문적 연구가 지속되어 왔지만 비행이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 비행에 관한 특별연구위원회(Task Force Juvenile Delinquency)¹³⁾와 형사사법행정과 범집행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의 보고서는¹⁴⁾ 예방적 조치가 비행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Glueck도 나이가 어릴 때 어떤 종류이든 치료를 받은 비행청소년 일수록 더 쉽게 더 빨리 사회 생활에 적응했다고 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⁵⁾

7) 표갑수, 청소년비행이론, 한국복지연구소 (1986), p.2.

8) 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89), p.74.

9) 노성호, "청소년비행의 개관," 청소년문제론(서울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pp.120~121.

10) 강구진, "청소년과 비행" 현대사회와 청소년 (서울 : 아산사회복지재단, 1983), pp.411~429.

11) 전재일, 양점도, "청소년 비행의 가정환경적 요인특성", 사회복지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제19집 (1991), p.66.

12) G.Winokur & R.R.Crowe, Personality Disorder,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Vol.2, 2nd(ed.) (Baltimore : Williams & Wilkins, 1975), pp.1288~1290.

13) Task Force on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Delinquency and Youth Crime(U.S.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p.41.

14)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in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 Crime in a Free Society(U.S.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p.41.

15) S. and E.T.Glueck, Predicting Delinquency and Crime(Harvard University Press,

비행은 순간적인 사건이라기 보다는 비행청소년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잠재적인 시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잠재적 시기에 비행을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잠재적 비행을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다. 물론 그 잠재적 요인이 확실한 것도 있지만 우연한 기회에 어떤 유발요인으로 비행이 발생하는 불확실하며 알려져 있지 않은 잠재요인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 비행의 발견은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급격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청소년 비행은 양적, 질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비행은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병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 기능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비행예방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학문적 관심은 저조한 실정이다. 다행히 청소년비행 예측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교정과 통제를 위한 척도 개발에 편중되어 있어서 앞으로 잠재적 비행 성향을 가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는 예측요인 연구와 함께 척도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2. 研究의 意義 및 目的

지금까지 사회 각계각층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나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만족할만한 연구결과나 대책은 수립되지 못했지만 학문적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한 예측 방법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연구된 예측척도는 형사정책의 측면에서 연구되었으며 적용대상도 비행을 범한 청소년들의 가석방이나 가퇴원 또는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형사학에서의 예측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척도라기보다는 통제 및 교정을 하기 위한 척도로 개발되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청소년 비행예측에 관한 연구는 Glueck의 소년비행해명 (unravelling juvenile delinquency)¹⁶⁾이 발표되면서 형사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1960년 서울소년원에서 소년심판의 보조자료로 「Glueck 사회적 예측 5 요인」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형사학계의 학자, 실무자, 청소년 관련단체도 사회적 예측표와 Rorschach 투사기법에 의한 심리검사 등을 검증하여 비행 적중률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진규¹⁷⁾는 비행예측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였고

1959), p.113.

16) S. and E.T.Glueck, Unravelling Juvenile Delinquency(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p.257~271.

17) 신진규, 형사정책(1)(서울 : 법문사, 1976), pp.424~448.

김기두¹⁸⁾도 정상집단과 비행집단을 비교 조사한 결과 조기예측표 및 진성불량소년 식별표를 연구하여 발표했다. 그리고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¹⁹⁾의 누범방지와 지광준²⁰⁾의 군인을 위한 예측연구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예측연구는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이미 사법제도에 인지된 비행청소년에 대한 누범방지와 가석방 및 가퇴원을 위한 예측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예측 요인의 추출을 위한 각 분야 별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행동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간행동은 개인의 내적 요구와 외적 요구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또한 인간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 특히 외적 요인은 과거의 성장경험, 환경 및 문화등이 인간행동에 결정적인 압력과 영향을 주고 있음이 정신분석, 심리학 또는 사회심리학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규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일찌기 이해한 사회사업가들은 인간의 행동을 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인간행동의 이해에 있어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간의 이해에 기초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문제행동의 요인은 가정, 교육, 사회환경 즉, 환경적 요인의 세범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종합적인 예측요인 추출의 일환으로 기존의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비행예측요인을 추출하여 잠재적 비행예측 척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잠재적 비행예측 척도를 개발하여 중·고등학교, 아동 및 청소년 상담소, 청소년 단체나 기관, 사회사업기관 및 시설 등에서 청소년들이 장래 비행 위험성이 있는지의 유무와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전하게 육성, 지도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研究方法

1. 調査對象

본 연구는 잠재적 비행성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 위험성을 예측하는 척도개발의 일환으로 중·고등학생을 정상집단으로 하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

18) 김기두, 전계서, pp.212~224.

19) 김대진 외, 소년 비행의 예측 : 이론과 실제(서울 : 중앙청소년회관출판부, 1973), pp.123 ~144.

20) 지광준, “국청소년범죄의 조기예측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7), pp.209~221.

는 청소년을 비행집단으로 하여 두집단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연령은 만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남녀로 하여 정상집단은 대구직할시에 소재한 D 여자중학교, K 여자고등학교, D 중학교, S 고등학교와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의 K 여자중학교, I 고등학교, 청도군 이서면에 소재한 I 중학교, I 고등학교 등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1개 학급씩 지역별로 선정한 남녀 중·고등학생과 근로 청소년인 산업체부설 H 여자고등학교 1,2,3학년 1개 학급씩을 표집하였고, 비행집단은 대구직할시 지역의 대구소년원과 대구소년감별소의 남자 비행청소년과 경기도 안양시 지역의 안양소년원의 여자 비행청소년을 표집하였다.

조사된 정상집단 854명과 비행집단 423명 합계 1,277명이 조사 대상이었으며 그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표III-19> 조사대상의 표본

단위 : 명 (%)

구분	정상집단		비행집단		계	
	N	%	N	%	N	%
남	432	50.6	346	82.9	778	60.9
녀	422	49.4	77	17.1	499	39.1
계	854	100.0	423	100.0	1,277	100.0

2. 調査道具

본 연구에서는 기초 조사계획의 일환으로 Glueck가 사용한 사회문화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및 정신의학적 요인과 지팡준의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및 사회적 요인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요인을 검토하여 본 조사 목적에 부합하고 비행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환경적 요인과 문제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주관적 사회항목과 객관적 사회항목으로 나누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사도구는 연구집단의 기본 속성을 발견하기 위한 설문지(I)과 비행과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지(II)로 구분하였다.

설문지(I)은 피면접자의 기본 속성에 관한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설문지(II)는 비행성향과 환경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정환경요인 27문항, 교육환경요인 11문항, 사회환경요인 13문항, 문제행동요인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II. 潛在的 非行 豫測의 尺度

1. 潛在的 非行 豫測의 模型

비행예측표의 구성은 단순성(simplicity), 효율성(efficiency), 반복가능성(repeatability), 신뢰성(reliability)에 근거하여 잠재적 비행성향을 예측하고 비행위험성의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예측척도를 작성하는데 이에 앞서 예측요인에 관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검토해 보았다.

가. 예측요인의 선정 및 검증

(1) 예측요인의 선정

예측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첫째 과정은 유력한 예측요인을 여러 개 선정하는 일이다.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의 생활환경을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양집단을 아주 뚜렷이 구별하는 요인 즉, 유의차가 아주 큰 요인 가운데서 예측요인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들 예측요인의 선정에 따라 유력한 예측표 작성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비행 예측표를 작성하기 위한 예측요인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잠재적 비행소년의 조기식별은 청소년들에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의 환경 즉, 가정환경, 교육환경, 사회환경, 문제행동의 요인 중에 유의차가 큰 요인 가운데서만 예측요인을 선정한다.

둘째, 유의차가 큰 요인 가운데서도 될 수 있는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인자를 예측인자로 선정해야 하며 그것도 중복되지 않는 요인이어야 한다.

셋째, 유의차가 큰 요인 중 청소년 비행판별에 비중을 가지고 있는 판별력이 높은 유효한 요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환경적 요인 81개 중 재검증을 거쳐 71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판별력을 검증한 결과 22개의 예측요인을 확정하였다.

(2) 예측요인의 검증

① 예측요인의 판별력

유효요인으로 선정된 22개의 항목을 다시 소항목으로 나누어 무비행과 비행간의 판별력을 Glueck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Glueck식 산출방법²¹⁾에 의하면 판별력의 범위는 +50.0부터 -50.0까지로 나타나

21) Glueck식의 판별력 산출방법

$$C = \text{판별력}$$

$$F = \text{비행자의 백분률(%)}$$

$$G = \text{무비행자의 백분률(%)}$$

$$C = \frac{F \times 100}{F + G} - 50$$

는데 (+)치로 나타난 수치는 판별력이 있으며 (-)치는 판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판별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수치의 항목을 보면 최고 +46.4에서 최저 +0.7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유효인자라도 (+)치의 크기에 따라 비행화인자로서의 정도를 잘 표시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0이상을 보여주는 수치의 것은 가족의 결손, 태학, 남녀혼숙, 이성희롱, 이성과의 성관계, 불량서클 가입, 주먹싸움, 집단 폐싸움, 만원미만 흡친 경험, 건물이나 기물파괴, 남의 집이나 건물침입, 음주, 흡연, 사창가 출입, 카페 및 다방 출입, 디스코장 출입, 당구장 출입, 약물남용, 전자오락실 출입, 가출, 흥기소지, 등록금 유용 등인데 이 항목들은 특히 높은 판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예측요인의 점수 부여

예측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선정된 예측요인의 각 소항목에 대하여 이론적 점수 또는 가중점수를 Glueck 방식에 의하여 계산했다.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 소항목별로 양집단 수를 백분률로 환산하고 그 때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비행자수의 백분률을 그대로 점수로 계산한다.

〈표 III-1〉 불량서클의 가입경험

구 분 가입경험	비행청소년 N %	정상청소년 N %	차 %
자주 있다	86 20.3	9 1.1	19.2
한두번 있다	85 20.1	17 2.0	18.1
없다	252 59.6	828 96.9	-37.1
계	423 100.0	854 100.0	

점수의 계산방법으로 본 조사연구의 예측표 중 불량서클의 가입 경험을 예를 들어 각 소항목의 점수를 계산하면 위의 〈표 III-1〉과 같이 된다.

불량서클에 가입한 경험을 다시 소항목별로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의 백분률을 계산해 보면 〈표 III-2〉와 같은 결과가 된다. 즉, 자주있다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각각 86명과 9명으로서 그 비율은 90.5%와 9.5%인 것이다. 불량서클에 가입한 경험이 자주있는 경우 비행청소년은 423명 중 86명이고 학생청소년은 854명 중 9명 뿐이었는데 이들 86명과 9명을 백분률로 환산하면 90.5%와 9.5%가 된다.

< 표III-2 > 소항목 점수

구 분 가입경험	비행청소년		정상청소년		계
	N	%	N	%	
자주 있다	86	90.5	9	9.5	97 100.0
한두번 있다	85	83.3	17	16.7	102 100.0
없다	252	23.3	828	86.7	1080 100.0

이렇게 계산한 비행청소년의 백분률이 곧 각 소항목의 점수가 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22개의 예측요인에 부여된 점수는 <표 III-3>과 같다.

< 표 III-3> 예측요인의 점수

순위	객관적 사회 예측 요인		점 수
	항 목	내 용	
1	가족의 결손	① 있다	64.7
		② 없다	20.7
2	태학	① 자주 있다	80.7
		② 한두번 있다	46.7
		③ 없다	7.3
3	남녀 혼숙	① 자주 있다	84.7
		② 한두번 있다	54.8
		③ 없다	15.1
4	이·성희롱	① 자주 있다	70.0
		② 한두번 있다	43.1
		③ 없다	21.9
5	이성과의 성관계	① 있다	80.4
		② 없다	16.6
6	불량서클가입	① 자주 있다	90.5
		② 한두번 있다	83.3
		③ 없다	20.3
7	주먹싸움	① 자주 있다	68.9
		② 한두번 있다	19.0
		③ 없다	7.0
8	집단패싸움	① 자주 있다	82.5
		② 한두번 있다	60.5
		③ 없다	15.7

9	만원 미만 흠친 경험	① 자주 있다 ② 한두번 있다 ③ 없다	83.3 56.1 17.8
10	건물이나 기물 파괴	① 자주 있다 ② 한두번 있다 ③ 없다	79.0 50.7 18.9
11	남의 집이나 건물침입	① 자주 있다 ② 한두번 있다 ③ 없다	81.0 63.5 17.5
12	음 주	① 자주 있다 ② 한두번 있다 ③ 없다	56.8 18.7 15.9
13	흡연	① 자주 있다 ② 한두번 있다 ③ 없다	81.3 16.5 5.5
14	사창가 출입	① 자주 있다 ② 한두번 있다 ③ 없다	85.7 75.0 25.1
15	카페 및 다방 출입	① 자주 있다 ② 한두번 있다 ③ 없다	78.6 31.3 14.9
16	디스코장 출입	① 자주 있다 ② 한두번 있다 ③ 없다	80.9 56.4 18.7
17	당구장 출입	① 자주 있다 ② 한두번 있다 ③ 없다	71.5 31.7 10.1
18	약물남용	① 있다 ② 없다	82.7 24.1
19	전자오락실출입	① 자주 있다 ② 한두번 있다 ③ 없다	48.7 31.9 15.9
20	가출	① 있다 ② 없다	76.1 9.6
21	흉기소지	① 자주 있다 ② 한두번 있다 ③ 없다	41.6 32.9 16.2
22	등록금유용	① 자주 있다 ② 한두번 있다 ③ 없다	46.5 36.9 11.4

나. 잠재적 비행 예측의 모형

① 예측표의 작성

22개의 예측요인의 점수를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환산해서 정확하게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 정상집단은 854명 중 853명이었고 비행집단은 423명 중 410명이었다.

예측요인의 점수를 예측 항목의 점수에 10분의 1로 환원시켜 합산해 본 결과 양집단 점수의 최저점은 36.6이고 최고점은 170이다. 양집단의 점수분포 및 평균치를 살펴보면 정상집단의 경우 36.6점에서 65.6점 사이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는 반면 비행집단은 78점에서 125점 사이에 다수 분포되어 있다. 또한 평균치는 정상집단이 55점이고 비행집단은 114점이며 양집단의 평균치는 75점이다.

〈 표 III-4 〉 각분 비행 예측표

단위 : 명 (%)

예측표	총가중점수	비행자수	비행확률	정상자수	무비행확률
2분예측표	75점 미만	118	12.5	823	87.5
	75점 이상	292	90.7	30	9.3
3분예측표	55점 미만	7	1.3	545	98.7
	55 ~ 114점	181	37.7	296	62.3
	114점 이상	222	92.9	12	7.1
4분예측표	55점 미만	4	0.7	537	99.3
	55 ~ 75점	114	28.5	286	71.5
	75 ~ 114점	110	85.9	18	14.1
	114점 이상	162	92.8	12	6.2

마지막으로 산출된 양집단의 평균치 75점을 기준으로 2분 예측표는 75점 미만, 75점 이상 2등분하여 작성하였고 3분 예측표는 정상집단의 평균치 55점과 비행집단의 평균치 114점을 기준으로 55점 미만, 55점~114점, 114점 이상 3등분하여 작성하였다. 4분 예측표는 양집단의 평균치를 75점을 기준으로 정상집단의 55점과 비행집단의 평균치를 축으로하여 55점 미만, 55점~75점, 75~114점, 114점 이상 4등분하여 작성하였는데 각 분별 예측표는 <표 III-4>와 같다

② 비행 확률의 산정

다음은 22개의 예측요인으로부터 산출된 점수를 합계한 각각의 점수급에 대한 비행확률(delinquency rate)과 무비행확률(nondelinquency)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각 점수급에 해당하는 양집단의 실수를 각급별로 백분율을 계산하므로써 비행

확률과 무비행확률을 산출할 수 있다.

4분 예측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먼저 55점 미만의 점수급인 경우 정상집단 표본사례 853명 중 537명이고 비행집단은 410명 중 7명 뿐이었는데 이를 백분율로 계산하면 99.3%와 0.7%가 된다. 상술하면 22개의 예측요인을 가지고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얻어진 점수가 55점 미만일 경우 그 청소년이 장차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이 0.7%이고 무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이 99.3%가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환언하면 이미 실시한 1,263명의 청소년에 관한 본 조사연구를 근거로 55점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비행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14점 이상인 경우 이 점수급에 해당하는 정상집단은 853명 중 12명이고 비행집단은 410명 중 182명이었다. 양집단의 수를 백분율로 계산하면 8.2%와 92.8%가 된다. 어떤 청소년에 대해 22개의 예측인자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114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면 그 청소년은 장차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이 92.8%이고 그렇지 않을 확률이 8.2%이다. 조사대상 1,263명에 관한 본 조사연구를 통하여 예측한다면 이 청소년은 잠재적 비행청소년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전략을 수립하여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을 조기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③ 잠재적 비행 예측의 모형

이상과 같이 작성된 각분 예측표의 예측률을 검증해 본 결과 각각 88.3%, 98.9%, 88.3%로 나타나 어느 척도나 유효한 척도임을 알 수 있다. 이 3가지 판정척도가 모두 유효한 경우 척도의 선택문제는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4분 예측표를 제시하면 <표 III-5>과 같다.

< 표 III-5 > 4분 비행예측표

판정	점수	등급
비행 위험성이 전혀 없다	55점 미만	I
비행 위험성이 없다	55 ~ 75점	II
비행 위험성이 있다	75 ~ 114점	III
비행 위험성이 아주 높다	114점 이상	IV

판정 기준표에서와 같이 I등급과 II등급의 점수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비행 위험성이 거의 없으므로 필요 이상의 지도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III등급의 판정자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며 IV등급의 판정을 받은 청소년

은 비행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④ 예측표의 검증

예측표의 검증방법을 대별하면 이론적 검증과 실제적 검증이 있다. 이론적 검증은 일단 작성한 예측표를 편의상 자기가 조사 연구한 대상에 적용하여 예측률을 산정해 보는 방법으로 예측방법 연구자들은 흔히 자기예측표의 발표와 함께 이론적 검증을 통한 예측률도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 검증을 통하여 예측률을 산정했다.

다음으로 작성된 예측표를 다른 청소년에게 적용해 보는 것을 실제적 검증이라고 하는데 실제적 검증에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전의 기록이나 자료를 가지고 예측표에 소급 적용하여 현재의 비행을 그 당시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나 검토해 보는 회고적 검증(retrospective validation study)과 예측표를 현재의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비행확률을 예측해 놓고 추적 조사하여 수년 후에 예측의 적중률을 알아보는 전망적 검증(prospective validation study)으로 구별된다.

2. 非行豫測 模型의 活用方案

비행및 범죄예측은 예방·수사·재판·교정의 각단계에서 당면하는 개개사례에 대하여 그가 장래 범죄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범죄예측의 문제는 예방·수사·재판·교정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언제나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판정의 적정여부는 거의 모든 처분·처우활동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더우기 세계 국가에서는 범죄의 예방과 교정에 관하여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구상하여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시책들은 대개 범죄의 위험성에 대비한 것이고 위험성 판정의 적정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된 점에서 범죄예측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범죄예측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첫째는 선택적 범죄 무능력화를 위해서이다. 범죄 무능력화 연구는 주로 특정 범주의 범죄자들이 일정기간 강제로 수감되므로 인해서 예방되는 범죄 전수의 추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추정에는 범죄 경력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필요하다. 범죄 무능력화에 관한 연구결과는 사용된 연구방법이나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의 비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

두번째로 예측이 적용되는 분야는 비행예측의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Glueck부부의 연구이다. 이 방법은 일반 소년들을 상대로 그 소년이 비행소년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Glueck부부의 조기 예측표는 예측률이 높아서 많은 학자들에게 비행예측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방법도 많이 응용되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비행 예측연구의 거의 모두는

Glueck부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번째 적용분야로는 가석방 예측을 들 수 있다. 범죄학에서 예측방법을 사용한 분야 중에서 가장 발전된 분야가 가석방 예측이며 가석방 예측방식은 가석방절차에 커다란 정책적 영향력을 미쳤다.

네번째의 적용분야는 형사처우의 영향 평가연구이다. 예측은 서로 다른 형사처우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비행및 범죄예측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성향의 여부를 조기에 식별하여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중·고등학생에 대한 잠재적 비행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진단용으로 활용하거나 청소년기관이나 단체, 청소년상담소 및 아동상담소, 사회사업기관이나 시설 등의 청소년들에게 비행 위험성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척도로써 활용할 수 있다.

IV. 結論

본 연구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간의 역동성의 이해를 통하여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잠재적 비행성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판별하여 조기에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므로써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학생청소년 854명과 비행청소년 423명을 대상으로 환경적 요인과 문제행동요인 81항목을 중심으로 정상집단과 비행집단을 비교분석하고, 비행과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적 요인 중 가정환경요인은 가족결손과 부모와의 동거, 가족 중 부도덕자의 유무 등의 항목순으로 유의차가 나타나 가족관계나 기능보다는 가족구조의 문제가 비행성향과의 관계가 높다.
2. 환경적 요인 중 교육환경요인-온 중·고등학교 재학 중 태학이나 성적, 교사와의 관계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나 학교교사나 시설, 교육내용보다는 교육제도로 인한 학교생활의 부적응 현상이 비행성향과의 관계가 높았다.
3. 환경적 요인 중 사회환경요인은 취업과 여가시간의 이용 형태, 고민, 주위환경, 이성교제, 즐겨읽는 소설 항목에서 유의차가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환경과 대중전달매체가 비행성향의 상관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가정·교육·사회환경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문제행동요인은 불량행위, 지위 및 은둔적 비행, 의도적 비행 항목에서 높은 유의차가 발견되고 있어 문제행동이 비행성향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며 예측요인으로서 어느 항목보다도 유의미한 변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적 요인 1개 항목, 문제행동요인 21개 항목 합

계 22개 항목을 예측요인으로 추출하여 예측척도를 작성하였다.

2분 예측표는 비행자가 아니면 무비행자로 판정할 수 있는 척도로 이용될 수 있으며 3분 예측표는 1급과 2급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나 중간급은 비행 여부를 예측하는데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형사정책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잠재적 비행청소년을 조기에 식별하여 사전에 비행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2분 예측표와 3분 예측표보다 세분화된 4분 예측표를 작성하여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척도로 제시하였다.

4분 예측표의 판정기준에 따라 비행 위험성이 높다고 판정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잠재적 비행성향의 원인분석에 따른 사회사업적 개입을 통하여 개개인의 성격 변화 뿐만 아니라 개인과 환경간의 조정과 더불어 개별적 위기개입과 개인 및 집단상담, 가족상담 및 가족위기개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생활속에서 사회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여 자발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원조해 주므로써 청소년 비행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